

주부의 시간계획 및 관리전략에 따른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r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by the Time Planning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홍 성 희

Dept. of Home Management, Kei Myung Univ.
Assistant Prof. : Hong Sung Hee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dependant influence of variables related to the managerial satisfaction, and casu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For this purpo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hose respondent were 448 housewiv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variables influenced independently to the managerial satisfaction were wife's age, income, perceived time pressure, time plann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2. Among all variables affecting the managerial satisfaction, income, time planning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had direct effect. And household size, employment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had indirect effect.

I. 문제의 제기

개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 가치 등이 반영되므로 시간사용은 생활의 문화적·사회적 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

시해주며, 특히 일상생활시간과 활동을 알게 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유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시간의 가치는 개인의 관리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사용의 결과는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간을 여러

활동에 적절히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됨에 따라 가정은 총합적인 생산체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생산의 기능은 주부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부들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은(김의숙등,1992) 여건하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전담은 시간제약의 상황을 초래하며,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시간요구때문에 심각한 시간제약을 지각하고 있다(Chung,1988).

시간제약은 시간자원의 특성과 역할과중에 의해 유발된다. 즉, 개개인인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과중하여 시간에 대한 요구가 큰 경우 시간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시간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주부들도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식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즉 시간집약적인 가사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감소시켜 자녀양육 및 가족원의 보살핌, 그리고 관리적인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한경미,1987)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여가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는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줄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 대량화되어 시간을 화폐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충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간제약을 지각하거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주부들은 시장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간관리전략을 사용(조성은,1991)하거나, 시간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나아가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김의숙 등,1992).

즉, 시간계획을 통해 시간낭비와 갈등을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최호숙, 1991)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관리방안은 관리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Newton,1984)를 통해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

략과 같은 시간관리 방안은 주부들이 가사노동 수행 시 지각하는 시간제약을 감소시키고 가사노동시간을 경감시킴으로써 관리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처해있는 개인적 상황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제약 지각에 따른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 사용실태의 관리만족도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함으로써 주부의 관리만족도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간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리만족도의 개념 및 영역

근래에 이르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복지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경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검토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기울이기 시작했다. Campbell등(1976)은 인간의 만족감을 열망(aspiration)과 성취(achievement)의 관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즉 인간의 만족감이란 일차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열망)과 실제로 향유하는 상황(성취)간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Hawkin과 Trens(1968)는 만족이란 목표나 요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라 하였으며, Burr(1970)는 만족을 개인이 경험하는 목표와 바람의 성취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객관적 견해와 주관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 내지는 가정생활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Newton(1984)은 관리체계에서 투입되었던 요구와 자원이 충족되고 사용된 결과를 만족도를 통해서 설명했다. Newton은 요구에 대한 반응 혹은 목표성취를 재는 척도를 만족도라고 주장했는데, 목표성취도는 개개인이 주택, 가정의 사회적 지위, 소득, 여가시간, 현재의 작업 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 즉 사회적 지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며, 관리적 행위에 대한 만족도는 가

족의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분담후의 결과, 금전 관리에 대한 만족정도로 설명한다.

두경자(1990)는 관리만족도를 작업자가 관리행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서 관리과정에서 계획과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주관적인 충족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최호숙(1991)은 관리가 단순한 가사작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정관리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리만족도도 계획과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주관적인 충족감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관리를 의식주와 관련된 가사작업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가족관계, 가정경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고, 관리만족도를 관리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충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관리만족도는 가정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이는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Heck(1983)은 관리만족도를 의식주생활, 건강, 가족관계, 자녀관계,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Newton(1979)은 금전관리, 자유시간, 가사분담량, 가사분담후의 결과, 레크레이션 방법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관리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두경자(1990)는 의식주생활에 대한 만족,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 자녀의 성취에 대한 만족, 주부의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을 포함시켰으며, 최호숙(1992)은 의식주생활, 가족관계, 자녀관계, 가정경제, 가사노동, 자유시간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영역으로 구성한 바 있다. 그러므로 관리만족도는 의식주생활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 및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량 및 가족원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 총체적인 생활만족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2.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통계학적 요인

관리만족도는 주부의 연령, 자녀연령, 가정생활 주기, 가족수, 교육수준, 소득, 취업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Heck(198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관리만족도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어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사노동의 부담이 감소하고 주부의 개인적인 여가시간과 자유시간이 증가하여 시간적인 제약과 피로가 적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을 하여 향상된 관리결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김재경(1992)의 연구에서는 확대기에 비해 형성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족수가 많은 경우 이는 관리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Heck(1983)은 가족수가 많은 확대가족은 자원은 적고 요구와 스트레스는 증가하므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도 가족수가 많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자가 많아져서 주부 개인의 자유시간이 적어지므로 관리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교육수준과 관리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교육수준이 관리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Heck,1983; 김재경,1992; 최호숙,1991)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과 관리만족도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서창원,1983). 그러나 교육수준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주부는 소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관리보다는 소득에 만족하려는 기대가 더 큰 결과,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소득에 대한 만족도로 대체시킨다는 Heck(1983)의 연구결과나, 취

업주부는 시간제약으로 짧은 시간내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므로 질적인 관리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관리만족도가 낮아진다는 두경자(1990)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주부의 취업유무는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은 관리를 위한 자원으로, 최호숙(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았으며, 김재경(1992)의 연구에서도 소득에 따라 가정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관리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아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은령(1989)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만족이 낮거나 부부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에서 소득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생활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가족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만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2) 시간제약지각

각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많아져서 시간에 대한 요구가 크거나, 주어진 시간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가 높게 설정되었을 때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의 총요구가 너무 커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시간제약이라고 한다(이승미, 1989).

주부가 시간제약을 느끼는 상황은 시간자원의 특성이나 역할과중,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상승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조성은, 1990), 첫째, 시간자원의 특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유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많은 가치나 욕구를 갖는 사람일수록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가사노동 수행시 시간제약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주부의 경우 역할과중으로 인해 시간부족과 시간제약을 경험한다. 즉, 취업에

우선적으로 일정시간을 배분해야 하므로 가정내 역할수행에 시간적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시간제약을 역할과중의 척도로 사용한 Cooke와 Rousseau(1984)의 연구에서도 입증된다. 셋째, 가사노동은 수행자의 표준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달라지고 나아가 가사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시간제약을 느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시간제약지각은 역할수행과 관련된 취업유무, 가사노동 요구와 관련된 가족수, 주부연령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시간제약을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조성은, 1991)를 통해, 시간제약지각은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시간계획

계획은 관리과정의 첫 단계로서 여러 대안적인 행동과정 중에서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계획을 통하여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행동의 각 단계에서 시간낭비와 갈등을 제거해 준다. 그러므로 특히 여러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계획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특히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업주부에 비해 과중한 시간압박 및 시간부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역할 재정의, 구획화, 조작 등의 계획을 많이 사용하며 (Chung, 1988) 우선순위 정하기, 스케줄 작성, 활동조직 등의 계획활동은 역할과중과 관련된 시간갈등과 긴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Fisher, 1986).

또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융통성을 고려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연숙, 1983)나 충분한 소득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용이하다고 한 보고(Huguley, 1976) 등을 통해 주부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 등에 따라 계획의 도입 및 실

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계획은 관리만족도와 매우 높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wton, 1984). 이연숙(1983)의 연구에서도 계획, 목표설정, 표준설정 등의 관리행동이 생활만족도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도 계획중 표준설정, 실현가능성의 하위영역이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 시간계획 수립을 비롯한 순서화, 시간맞추기(synchronizing) 등의 체계적 과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시간사용과 생활에 더 큰 만족을 제공해준다(문숙재등, 1990).

그러므로 주부 개인의 시간계획의 수립 및 사용 정도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이렇게 사용된 시간계획은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간관리전략

시간자원을 가정생활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시간사용에 따라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취업주부들이 다양한 역할수행에서 초래되는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전략으로서 이는 기업조직과 가족체계에 존재하는 역할갈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지각하는 시간제약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시간제약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Strober와 Weinberg(1980)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전체 가계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재 설비인 전자오븐, 식기세척기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 가계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 조력자나 남편 또는 자녀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방법, 가계생산의 양이나 질을 낮추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원봉사와 지역사회활동에 분배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 여가 및 수면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다.

Nickols와 Fox(1983)는 위의 5가지 전략중 자본재 설비, 편의품, 서비스의 이용은 화폐로 시간을 사는 것이므로 시간구매전략으로, 가사노동의 양이나 질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분담하는 것, 여가 및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등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절약하는 것이므로 시간절약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승미(1989)는 Strober 등(1980), Nickols 등(1983)의 연구를 토대로 주부가 자신의 가사노동량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둔 가사노동 수행방안으로 가족원간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생활시간분배의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 조성은(1991)은 Strober 등(1980)의 5가지 전략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주부들의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이 활발치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가족원간 분담,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 재화의 사회화,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 및 수면 시간 분배의 7가지 전략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전략을 주부가 가사노동 수행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 또는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가족원간 분담, 가사노동의 기계화, 사회화, 수행표준의 조정, 여가 및 수면시간 조정의 5개 전략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시간관리전략은 주부 개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사용정도 및 구체적인 사용전략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에 따라 조성은(1990)의 연구에서는 20대와 50대의 주부들이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주부들은 어린 자녀의 양육에 가족원의 분담을 필요로 하며, 50대의 주부들은 성장한 자녀의 분담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0). 한편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이 낮으며(이승미, 1989),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조성은, 1990). 즉 주부의 취업은 시간제약을 유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표준의 조절을 유도하거나 증가된 소득으로 가사노동 대체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수는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나, 선행연구 결과 전문직 주부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조력을, 비전문직 주부는 자녀의 조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이승미, 1989) 가족원간 분담과 같은 전략을 제공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시간관리전략과 관리만족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으나 취업주부들이 시간제약을 해소시키기 위해 외식, 편의품, 자녀양육 서비스 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Nickols 등, 1983; Bellante, 1984)와 이러한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이용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조성은, 1990)에서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은 시간제약을 해소시키고,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나아가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수행시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의 도입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만족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관리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시간제약 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 관리만족도와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설문지중 시간제약지각은 이승미(1989), 조성은(1991), 장윤옥(1992)의 연구

를 참고로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63이었다. 시간계획은 가사노동수행이나 가계운영을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연숙(1983), 두경자(1990), 한경미(1991)의 연구를 참고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0.722였다. 또, 시간관리전략은 가사노동의 분담, 기계화, 상품화, 수행표준의 조정, 여가 및 수면시간의 조정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중 수행표준의 조정과 여가 및 수면시간조정 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0.738, 0.700이었다. 관리만족도는 두경자(1990), 최호숙(1991) 등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814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3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길과 분석후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에 걸쳐 서울과 대구 각 지역 소재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의 학생 학부모 420명과 가정형성기, 학령전 자녀기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부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중 448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는 SPSS 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중 가족수는 4명이 가장 많고, 4-5명이 전체의 71%에 달한다. 주부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의 순이었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약 78%이고, 취업주부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총

소득은 100-150만원미만과 200-300만원미만이 거의 유사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의 순이다.

확대기에 비해 형성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부의 연령 및 막내자녀 연령,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관리만족도는 연구에 따라 많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8)

변 수	집 단	빈 도	백분율(%)
가 족 수	3명 이하	53	11.8
	4명	195	43.5
	5명	127	28.3
	6명 이상	73	16.3
주부연령	30대 이하	181	40.4
	40대	205	45.8
	50대 이상	62	13.8
학 력	중졸 이하	96	21.4
	고 졸	200	44.6
	대졸 이상	152	33.9
소 득	100만원 미만	52	11.7
	100-150 만원	118	26.6
	150-200 만원	87	19.6
	200-300 만원	117	26.4
	300만원 이상	70	15.8
취업유무	비 취업	299	67.0
	취 업	147	33.0

2. 관리만족도와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관리만족도에는 주부 개인의 특성과 시간계약지각 정도,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변수들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관리만족도에는 주부의 개인적 특성중 연령과 소득, 시간계약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시간계약을 적게 지각할수록,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았다. Heck(198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가정생활주기를 관련시킨 이종숙(1989), 김재경(1992)의 연구에서는

〈표 2〉 관리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 리 만 족 도	
		B	β
가족수		0.008	0.018
주부연령		-0.007	-0.099*
교육수준		0.019	0.082
소득		0.001	0.209***
취업유무		0.078	0.073
시간계약지각		-0.207	-0.391***
시간계획		0.113	0.146***
시간관리전략		0.607	0.373***
상 수		1.762	
R ²		0.362	

* P<.05 *** P<.001

차이를 보인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김재경(1992), 최호숙(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득은 관리를 위한 자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제약은 관리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시간제약을 지각하는 주부들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우수한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으로도 관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계획은 관리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연숙(1983), Newton(1984), 두경자(1990) 등의 연구에서 계획이 관리만족도와 매우 높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 시간관리전략도 관리만족도에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 수행시 다양한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관리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시간관리방안을 통해 관리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리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부 개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취업유무, 가족수 등의 상황에 따라 가사노동 부담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가사노동 수행시 지각하는 시간제약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시간제약지각 정도에 따라 시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활용할 것이며, 그 결과는 관리만족도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 결과 각 종속변수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1차 회귀분석결과를 기초로 경로모형 구성을 위한 최종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간제약지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가족수와 취업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취업주부일수록 시간제약을 많이 지각하였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관리상황이 많아질 것이며, 취업주부는 주부역할 이외에 취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과중에서 오는 시간부족이나 시간제약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시간계획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교육수준과 시간제약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제약지각을 많이 할수록 시간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운다고 한 이연숙(198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교육수준은 계획능력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시간관리전략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연령과 시간제약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제약을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조성은(199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간관리전략 하위영역 구성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종속변수인 관리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시간관리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시간제약지각, 소득, 시간계획, 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시간제약지각을 적게 할수록, 시간계획을 많이 할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5.2%였다.

<표 3>의 최종회귀분석결과 제시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제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경로계수와 경로모형을 구하였다.<표 4참조>

<표 4>에서 시간제약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을 매개로 한 관리만족도의 총 경로효과를 보면, 가족수는 약한 상관관계($r=.018$)를 가지고 시간제약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으며, 교육수준의 총효과($r=.277$)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나 시간계획을 통한 간접효과만 갖는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 3〉 경로모형 구성을 위한 회귀분석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시간제약지각 $R^2 = .407$ $F = 152.022^{***}$	가족 수	.161	.181 ^{***}
	취업 유무	.263	.626 ^{***}
시간 계획 $R^2 = .064$ $F = 15.359^{***}$	교육 수준	.052	.244 ^{***}
	시간제약지각	.090	.132 ^{**}
시간관리전략 $R^2 = .076$ $F = 18.171^{***}$	연령	.007	.157 ^{***}
	시간제약지각	.074	.229 ^{***}
관리만족도 $R^2 = .352$ $F = 47.734^{***}$	연령	-.008	-.111 ^{**}
	소득	.001	.249 ^{***}
	시간제약지각	-.189	-.356 ^{***}
	시간 계획	.121	.157 ^{***}
	시간관리전략	.603	.371 ^{***}

** P<.01 *** P<.001

〈표 4〉 관리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총경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시간제약지각 $R^2 = .407$ $F = 152.022^{***}$	가족 수	.181 ^{***}		-.051	.130 ^{**}
	취업 유무	.626 ^{***}		-.014	.612 ^{***}
시간 계획 $R^2 = .064$ $F = 15.359^{***}$	교육 수준	.244 ^{***}		-.026	.218 ^{***}
	시간제약지각	.132 ^{**}	.106		.085
시간관리전략 $R^2 = .089$ $F = 13.547^{***}$	연령	.157 ^{***}			.152 ^{**}
	시간제약지각	.229 ^{***}	.184	-.187	.226 ^{***}
관리만족도 $R^2 = .352$ $F = 47.734^{***}$	연령	-.111 ^{**}	.058	.064	.011
	소득	.249 ^{***}		.090	.339 ^{***}
	시간제약지각	-.356 ^{***}	.105	-.171	-.290 ^{***}
	시간 계획	.157 ^{***}		.105	.262 ^{***}
	시간관리전략	.371 ^{***}		-.032	.339 ^{***}
	가족 수		-.064	.082	.018
	교육 수준		.038	.239	.277 ^{***}
	취업 유무		-.222	.105	-.117 [*]

* P<.05 ** P<.01 *** P<.001

시간계획을 많이 함으로써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킨다. 또, 취업유무도 시간계약지각을 통한 부적 간접효과(-.222)만 갖으므로 취업주부는 시간계약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관리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은 관리만족도에 대해 부적 직접효과(-.111)를 갖으나 시간관리전략을 매개로 한 정적 간접효과(.058)를 갖음으로써 총효과는 미약해진다. 소득은 정적 직접효과(.249)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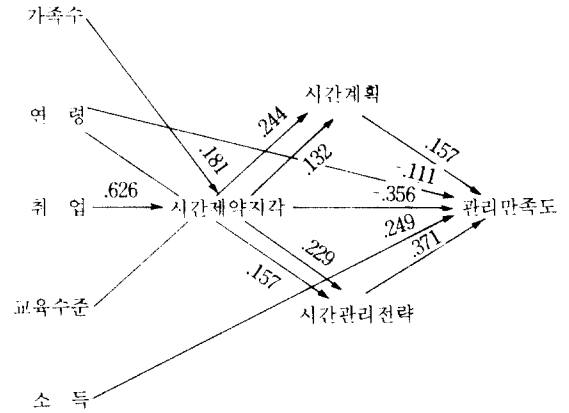
매개변수인 시간계약지각은 부적 직접효과(-.356)를 갖으나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을 매개로 한 정적 간접효과(.105)를 갖음으로써 총효과는 다소 감소된다. 시간계약지각을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계획을 많이 세우고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관리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나, 시간계약지각 자체가 관리만족도와 강한 부적 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시간계약을 많이 경험할수록 관리만족도는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관리만족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35.2%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간관리전략이고, 시간계약지각, 소득, 시간계획, 연령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 소득 등 주부가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 이외에 시간계약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등 시간자원과 관련된 매개변수들이 관리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계약지각은 가사노동 수행이나 관리과정을 저해시키며 관리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은 관리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간계약을 많이 느끼는 주부들은 시간계획이나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관리방법을 통해 시간계약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시간계약을 경험하지 않는 주부도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을 도입시킴으로써 관리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간관리전략은 관리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방안으로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주부의 개인적인 특성은 관리만족도에 직접, 간접의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매개변수를 통해 직접, 간접의 효과를 나타내어 경로모형을 통한 각 변수들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그림 1)



(그림 1) 관리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가사노동 수행시 경험하는 시간계약지각에 따라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 활용이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주부의 개인적 특성, 시간계약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관리만족도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관리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소득, 시간계약지각,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이었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시간계약을 적게 지각할수록,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았다.

또 관리만족도에는 소득과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이 직접효과를 보이며, 가족수와 취업유무는 시간계약지각을 통한, 교육수준은 시간계획을 통한 간접효과를 보인다. 한편 시간계약지각은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매개변수를 통한 각 변수들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간계약지각은 관리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됨으로써 주부들이 처한 가사노동의 과중이나 역할과중의 상황은 가사노동의 결과 및 관리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시간계약지각은 그 해결을 위해 시간계획이나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관리방안의 도입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은 시간계약을 감소시키고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수준은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나 시간계획을 증가시킴으로써 관리만족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은 계획능력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과정에서 계획을 통한 관리능력의 향상 및 관리결과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시간관리전략은 관리만족도에 가장 큰 직접 효과를 갖는 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시간관리전략은 다양한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가사노동수행을 촉진시키거나 관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관리전략 척도의 하위영역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특히 여가 및 수면시간의 조정은 시간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라기 보다는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간계약에 의한 결론론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각 하위전략이 관리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와 각 하위전략을 사용하는 주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각 가정 및 주부의 조건에 적합한 시간관리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 3) 김외숙 등(1992), 가족자원관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4)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6) 문숙재·김정옥 역(1990), 가정자원관리, 서울:동명사.
- 7) 서창원(1983),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계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이연숙(1983),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 한국가정학관리학회지 1(2).
- 10) 장윤옥(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계약이 역할갈등과 시간계약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1) 조성은(1990),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최호숙(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Bellante, D & A.C.F oster(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15) Burr, W(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16)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 17) Chung, Y. L.(1988), *Family time management strategies: relationships to perceived time conflicts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Iowa State Univ.
- 18) Cooke, R. A. & Rousseau, D. H.(1984), stress and strain from family roles and work role expectations, *J of Applied Psychology* 69, 252-260.
 를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재인용.
- 19) Hawkin, J.L. & L. Trans(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ality & Marital satisfac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을 김경숙, 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에서 재인용.
- 20) Heck, R.K.Z.(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Cornell Univ.
- 21) Huguley, B.C(1976), *Managerial orientation and its effect on level of liv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tiy.
- 22) Newton, D.L.(1984),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
- 23) Nickols, S.Y.& K.D. Fox(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 of Consumer Research*, 10,197-2208.
- 24) Reilly, M.D.(1983),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 25) Strober, C.M. & C.T. Allen(1981),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 of Consumer Research*, 8,189-196.
- 26) Strober, C.M. & Weinberg(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